

GS칼텍스, 보령 LNG 저장기지 조성

이완구 충남지사 적극 지원하겠다 ... GS는 8년간 2조원 투입 계획

충남 보령시 오천면에 GS칼텍스의 대규모 LNG 저장기지가 조성될 전망이다.

10월26일 보령을 초도 방문한 이완구 충남지사는 보령문예회관에서 열린 시민과의 대화에서 “GS칼텍스가 보령시 오천면 영보리 109만㎡(33만평)의 터에 LNG 저장기지를 조성기로 하고 10월 마지막주 중 지방산업단지 지정 신청서를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완구 지사는 “GS칼텍스는 지방산업단지를 직접 개발하게 되며, 앞으로 8년간 단지에 2조원을 투입할 계획인 것으로 안다”며 “산업단지 지정 신청서가 접수되면 기쁜 마음으로 허가하겠다”고 덧붙였다.

또 “단지가 보령에 조성되면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산업단지 조성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조만간 TF팀(기획전담팀)을 꾸려 원스톱 서비스에 나설 방침”이라고 약속했다.

대우그룹이 조성한 관창공단 문제에 대해서는 “공단으로 쓸 수 있는 105만6000㎡(32만평) 가운데 56만1000㎡(17만평)는 명성철강 등 8사가 대우건설 인수에 나선 금호그룹과 부지매입 협상을 벌이고 있다”며 “나머지 49만5000㎡(15만평) 가운데 16만5000㎡(5만평)는 외국인전용 임대공단으로 조성하고 33만㎡(10만평)는 국가임대산업단지로 조성하려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보령=연합뉴스 이은파 기자) <저작권(c)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06/10/27>